

샬롬~ 하느님께 영광~!! 좋으신 하느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09월 23일은 유*대력 일곱 번째 달, 티슈리월 초하룻날 '나팔절'(히, 욥 트루아¹⁾)입니다.



같은 달, 티슈리월 십일은 '속죄일'(히, 욥 키푸르²⁾)입니다.



- 1) 레위기 23: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찌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민수기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 2) 레위기 23: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
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나팔절’ 열닷새 후인 티슈리월 십오일은 ‘초막절’(히, 쉰3);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유대력 티슈리월, 곧 일곱 번째 달 초하룻날 ‘나팔절’은 초승달 목격 후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초승달을 봤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고, 반드시 두 명 이상 초승달을 목격했다고 증언해야 ‘나팔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하여 “숨겨진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후 200년경 구전율법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엮은 것을 ‘미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3세기부터를 미쉬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미쉬나에서 나팔을 부는 법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트키아(떨지 않고 길게 부는 것), 쉬바림(세 번씩 짧게 끊어서 부는 것), 그리고 트루아(아홉 번씩 더 짧게 끊어서 스타카토로 부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욥 트루아’니까 트루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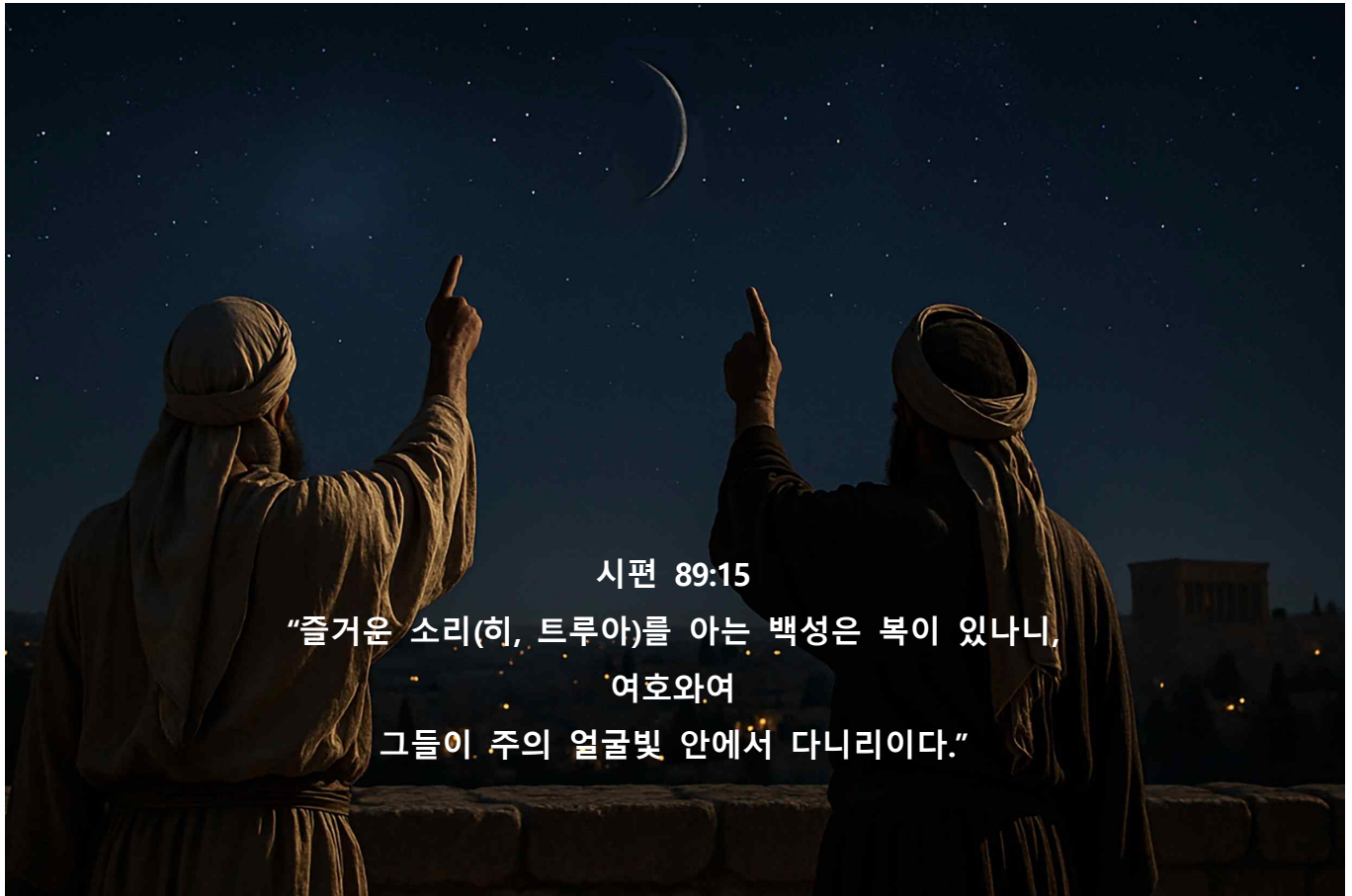
3) 레위기 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35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찌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며 36 칠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것이며

법으로 나팔을 불니다. 히브리어 '욥'은 '날'(day), '트루아'는 '나팔 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팔(트루아)은 새 달이 시작할 때, 왕위 즉위식에서, 전쟁 시작, 승리, 희년 시작할 때, 제사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트루아'(나팔)는 '특정 시각 경보', '신호', '기쁨의 탄성', '전쟁', '하*나님 음성' 등등 다양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 열흘 후에 이어지는 속죄일을 연결해 생각해보면, 나팔절 트루아 연주는 특정 시각을 알려주는 '시보'와 '경고' 성격이 매우 강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흘 후면 속죄일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내쳐질 수 있으니, 나팔 소리를 듣는 2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두려운 열흘'(야밈 노라임)이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9:19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 하'셨으니,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음성을 연상케도 합니다. 요엘 2:1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찌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렀다며 나팔 소리를 여호와와 날, 심판의 날과 연결합니다. 고전 15:51-52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며 나팔 소리를 예#슈아님의 재림과 연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4-16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예#슈아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 "끌어 올려질" 것이라고 나팔 소리와 재림을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요한계시록 1:10에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며 나팔 소리를 예#슈아님의 음성과 연결합니다. 계시록 11:15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며 나팔 소리를 그리#스도의 나라 극치와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절기이며, 회개와 심판을 준비시키는 절기이고, 예#슈아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팔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에도 하#나님 음성과 연결되었고,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팔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에도 예#슈아님 음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고, 나팔 소리의 원상인 하#나님 음성, 예#슈아님 음성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슈아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시편 89:15

“즐거운 소리(히, 트루아)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2스랄의 주적은 '이란'입니다. 이제까지 이란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위 이란의 앞잡이들을 이용하여 2스랄과 대리전을 치러 왔습니다. 이란의 대표적 대리전 투 세력은 예멘의 후티 반군, 지금은 무너졌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 이라크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란의 대리세력들은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명명되었고, 이 악의 축을 없애기 위해 미국, 2스랄 그리고 최근에는 EU 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지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군은 지휘부가 거의 와해되었고, 이라크 의회가 안정되어가며 친이란 시아파 이라크 민병대도 위축되었고, 예멘 후티 반군도 세력이 많이 줄어, 이란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입해 있는 NPT 조약,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이란이 IAEA 핵 사찰을 받았는데, 불법 비(非)인가 시설이 몇 곳 적발되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핵 연료 시설, 원자력 연구 시설 등등 수 개월 내 당장이라도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들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스랄은 이것을 명분 삼아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면서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란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체결하면 주적이 없어지니까, 전쟁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현 2스랄 극우 정권 수장 네탄냐후 총리가 이란-미국 핵 협상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을 계획하고 지휘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탄냐후 총리는 **"핵무기에 근접한 위협"**을 계속해서 주장,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유#대인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IA 및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란 핵 프로그램에 깊숙이 침투해 이란 영토 내에 드론 기지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고농축 우라늄의 이동 경로, 시설의 약점, 과학자들의 활동을 실시간 추적해온 결과 이란이 핵무기 실전 배치 수준에 근접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네탄냐후 총리는 이란 내 고위 핵과학자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자지구-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뉴욕 UN 본부(2025년 06월 17-20일 예정)에서 양국 공동으로 '가자지구 정전, 인도주의 지원, 인질 석방,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습니다. 이 회의가 열릴 경우, 프랑스와 사우디가 가자지구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국제여론을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 네탄냐후 총리는 전장을 이란으로 확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란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사기, 배임, 뇌물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측근이 카타르 왕실의 자금을 받았다는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권 해산 찬



/반 투표를 했는데 120석 중 61표를 간신히 얻어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병사들의 전사, 경제 악화, 인도주의 위기에 따라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악화되었고, 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맞은 브엘셰바 아파트]

권은 정권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이란을 선제공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후티 반군이 2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덴만, 홍해,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상선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아덴만-홍해 해상로가 볼모로 잡히니, 국제 해상운송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민폐를 끼치는 후티 반군의 뒷배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주적은 2스라엘입니다. 2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1991년 2월 28일 걸프전 종전 이후 소위 ‘그림자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첩보/대리전을 치러왔습니다. 양국의 적대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05년 10월 26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시온주의자 없는 세계’ 집회 때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그날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1948년 05월 14일) 시온주의 정권, 곧 2스라엘 정부 수립은 세계의 압제자들-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 국가들-에 의한 반(反)이슬람적 조치였다. 우리의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말한대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시아파 동맹(또는 시

아파 벨트라고도 함)을 앞세워 2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려 장기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시아파 동맹(이란의 대리전 세력)이었던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 이라크 친이란계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가자지구 하마스가 힘을 잃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직접 2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2025년 09월 09일 2스라엘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원 거주지를 전투기로 정밀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도자인 칼릴 알-하야의 아들과 그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하마스 고위 간부 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카타르는 이집트, 미국과 더불어 하마스와 2스라엘 사이에서 인질 교환과 휴전을 위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마스 정치국원들 겨냥한 정밀 폭격이라 해도 중재국 카타르에 2스라엘이 폭격을 감행했으니, 2025년 09월 08일 총기 테러로 열두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2스라엘 정부의 응징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돕는 기#도 꺼리들을 나눕니다.

돕는 ㄱ도 부탁드립니다~

0. 7월에 무료급식소를 다시 열었는데, 9월에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이지만 무료급식소에 새로운 중독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ㄱ. 0혼9원이 지속되도록

ㄴ. 전쟁 이면에 있는 하늘 아버지 뜻을 잘 헤아리도록,



1. 전쟁 중이지만 일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료급식소/마약치유센터도 여느 때처럼 노숙자/마약중독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막는 '건고한 진'을 파해주시도록,

ㄴ. 마약중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ㄷ. 자원하여 봉사하는 지체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ㄹ. 스텝들이 자기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도록, ㅁ령에 사로잡히도록,



2. 푸드뱅크 등등 무료 먹거리를 찾아 시장 등등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ㄱ. 마약/알콜 중독자와 노숙자들에게 나눌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3. 2024년 10월 시작한 여성 마약 치유센터를 여러 이유가 있어 새 장소로 옮겼습니다.

함께 숙식하며 지낼 4역자들을 세워 '중독 치유 4역'을 시작했습니다.

ㄱ. 입소한 자매가 중독을 잘 극복하도록,

ㄴ. 입소한 자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기를,

ㄷ.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도록,



4. 우리 러시아계 유대인 가족에는 갓 입대하여 참전한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그리고 예비군으로도 복무하며 전투 중인데,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5.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체들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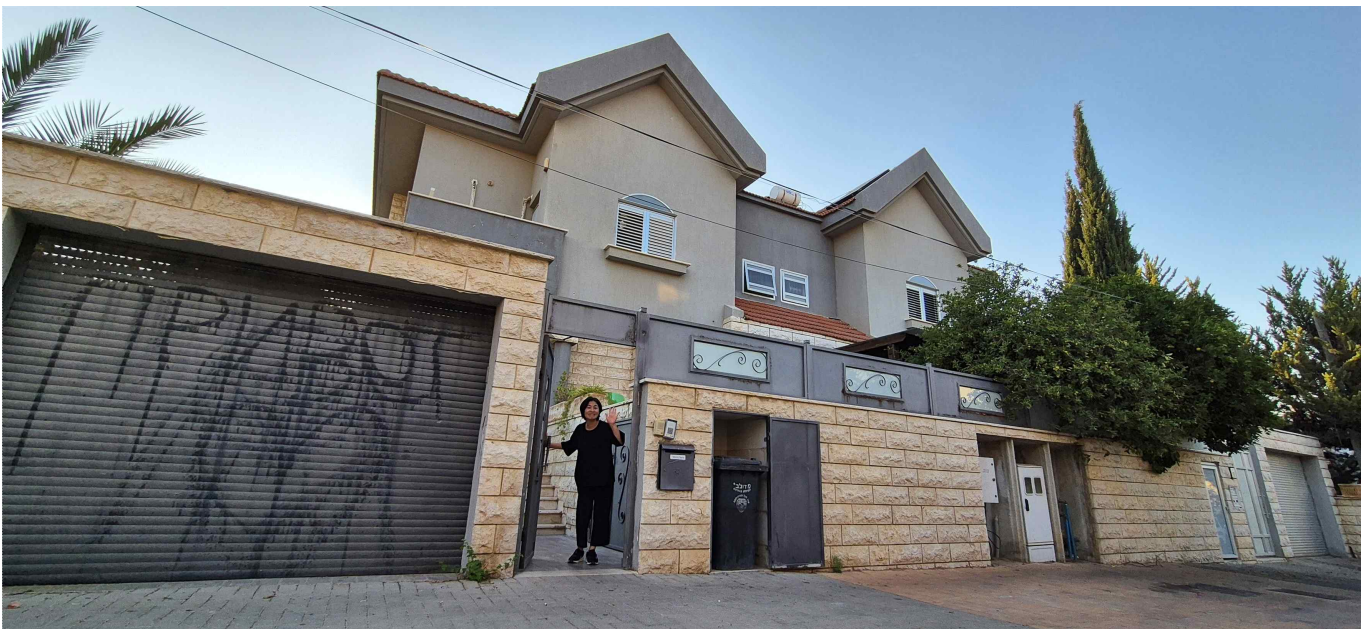
혼자 살다 보면 마약중독 치유 과정을 수료했어도 다시 중독에 빠지기 쉽지만,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마약에 다시 손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ㄱ. 생활 공동체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다시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6. 마약치유센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바트-암' 시(市)에 난민 목사님 부부를 세워
우크라이나, 오세티아, 러시아, 세 나라 난민이 모이는 그 곳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ㄱ.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되도록, 건강하게 그 곳이 세워져 가도록,



[여성 마약치유센터, 미혼모 생활 공동체, 청소년 쉼터, 청년 자립지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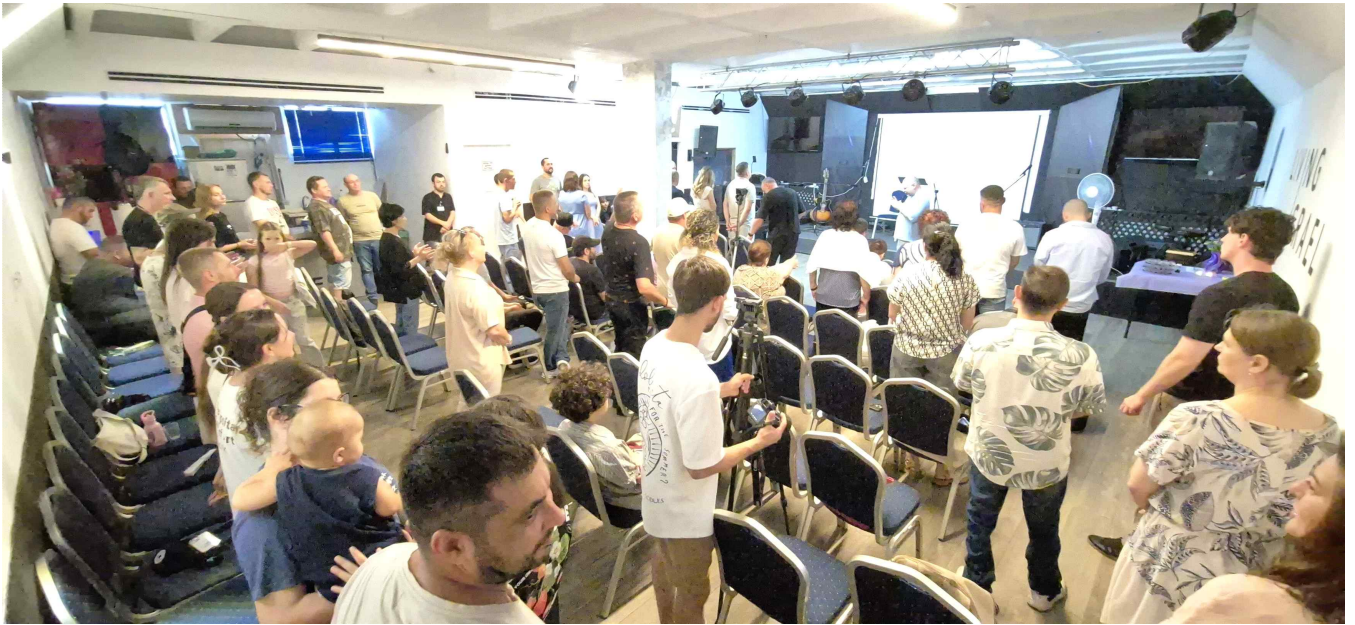
7. 여성 마약치유센터를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성 마약치유센터와 같은 건물에 미혼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숙소도 함께 임대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가 독립하기 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젊은이 자립 센터도 바로 이웃 건물을 임대해 마련했습니다. ○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배당도 새로 임대했습니다. 마약중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수한 교회가 마약중독 치유 프로그램 수료자들, 마약중독자의 가족들, 미혼모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전도된 초신자들, 우크라이나 난민들 등등, 중독자, 비 중독자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손-레.찌온이라는 중소도시에 자리 잡은 이 교회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치유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한 청년

- ㄱ. ○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도록,
- ㄴ. 성*령 체험과 더불어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 ㄷ. 공동체가 '말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8. 무료급식소, 마약치유센터, 여성마약치유센터, 리손-레.찌온 교회, 바트-암 난민들 교회, 미혼모 센터, 젊은이 자립 센터 등등 현장의 필요를 따라 일을 하다보니 이것저것 4역들이 늘어났습니다. 4역에 필요한 재정들과 마약치유센터 월세가 채워지도록,



[안식일 예배 때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체 합심 기도]

9. 우리 부부가 2스라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2스라에 김 영현, 황 혜영 배상

계좌번호와 가족사진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GP 선거회 공식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90819-590 예금주 김 영현. 황 혜영



e-메일: solideo0691@daum.net

한국 인터넷 전화: 070-4670-2414

카톡 ID : solideo0691



[카카오톡 QR 코드]

추신.

다음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전에 나눴던 2스라el 선거 상황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pinternational.org/?_filter=search&act=&vid=&mid=gp_story&category=&search_keyword=%EA%B9%80%EC%98%81%ED%98%84&search_target=user_name